깃발(유치환)

※ <깃발(유치환)> 기본내용 파악

⇒ 이 작품은 이상향을 동경하지만 숙명적인 한계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과 고뇌를, 끊임없이 펴려오는 '깃발'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푸른 해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펴려오는 깃발은 이상 세계에 도달하고자 염원하지만 깃대에 매어 있는 숙명적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깃발은 좌절의 슬픔을 느낀다. 이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상을 동경하는 인간 존재의 모순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작품의 의미 풀이

-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은유법
  - ↳ 깃발   ↳ 침묵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내적 몸부림(역설법)
-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 ↳ 이상 세계, 초월적 세계
-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노스텔지어: 향수(鄉愁-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 손수건 ⇒ 이상향에 대한 동경
-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 이상향에 대한 순수한 소망과 갈구
- ✓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깃대 끝에
  - ↳ 깃대 - 깃발의 숙명적 한계
-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 '푸른 해원'과 색채 대비(청↔백)
- ✓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창조주)는.
  - ⇒ 인간 운명에 대한 근원적 의문(도치법)
  - 아아 ⇒ 영탄법
  - 애수, 마음 ⇒ 깃대로 인해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운명적 한계(좌절감)

※ 작품의 짜임

1~3행	이상향을 동경하는 깃발의 역동적 모습
4~6행	깃발의 순수한 열정과 한계로 인한 애수
7~9행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와 좌절의 슬픔

※ 작품 정리

1. 주제: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
2. 특징
  - ① 비유를 통해 구체적 사물을 관념화하여 표현함
  - ② 역설법, 직유법, 영탄법, 도치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함
  - ③ 깃발의 역동성과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함

※ 핵심 시어의 의미

- 깃발: '펼쳐짐'과 '매임'이라는 두 소석을 지닌 존재로 이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동경과 근원적 한계를 나타냄
-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상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 갈망과 동경
- 푸른 해원: 이상 세계, 초월적 세계
-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운명적 한계